

# 지역 역사 공간의 스토리텔링 방향과 실제\*

-대구 원도심 골목을 중심으로-

박승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골목의 문화적 가치와 스토리텔링
  - 1. 골목의 문화적 가치
  - 2. 장소성과 스토리텔링
- III. 대구 골목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실제
  - 1. 『마당 깊은 집』과 공간 스토리텔링
  - 2. 시민 중심 스토리텔링-『대구新택리지 프로젝트』
  - 3. 체험과 실체로서의 골목 스토리텔링-『도심은 살아있다』
  - 4. 사람과 생애 중심 스토리텔링-『시간의 포켓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구의 원도심 지역에 형성된 골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핀 것이다. 그것은 공간 스토리텔링이 공간의 장소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골목이라는 공간의 인문적 재현과 생활문화의 공간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도시의 골목은 인간의 실존과 역사, 문화적 경험과 그 기억의 실재를 규정하거나 보여주는 장소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의 골목 중에서 대구의 원도심에 남아 있는 골목이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삶의 공간, 소통과 관계의 장소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골목 재구성에 활용된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장소와 인간의 생활사를 연결하는 서사

\* 이 연구는 2011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조 혹은 글쓰기의 의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장소 혹은 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첫째, 대중들에게 공간 읽기를 유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이야기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 및 특징을 쉽게 이해시킨다는 점. 셋째, 이야기를 통한 각인의 효과로 공간의 이미지 형성을 쉽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 넷째,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간 기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공간의 소통을 열어주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문에서 밝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구 신택리지』, 『도심은 살아있다』, 『시간의 포켓북』 등 대구 골목을 테마로 한 세 가지 스토리텔링 사례를 살펴보고, 공간(골목) 스토리텔링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시민 중심, 체험 중심, 생활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해 보았다.

주제어 : 골목(an alley),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장소성(a sense of place), 원도심(the original downtown area), 공간텍스트(place text)

## I. 머리말

이 연구는 대구의 원도심 지역에 형성된 골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도시 재생 과정에서 공간의 장소성을 실현하는 공간 스토리텔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살펴 본 것이다. 그리고 공간 스토리텔링이 공간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현하는 과정이며 생활 공간의 현재적 재구성을 실현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도시의 역사성을 내재한 공간 및 장소들이 도시 개발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골목과 같은 장소는 인간의 실존과 역사, 문화적 경험과 그 기억의 실재를 규정하거나 실현하는 주요 공간 역할을 해왔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경험이 거주 공간이나 장소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소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장소는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

서가 융합된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이다. 장소는 추상이나 개념이 아닌,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장소는 의미, 실재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중심이 된다”<sup>1)</sup>

장소의 의미는 전근대적인 공간일수록 더욱 강렬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장소성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도시의 골목 공간이다. 골목은 “한국인의 삶과 양식, 공간이해, 더 나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sup>2)</sup>는 의미의 공간이다. 골목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에 연속성을 허락하는 공간이다. 골목은 자신과 타자의 삶을 매개하고 때로는 복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골목은 상호 배려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며 타인을 공생의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의 넓이를 보여주는 장소인 것이다.<sup>3)</sup> 이러한 골목의 가치는 최근 공간과 자아, 타인 및 세계, 자신의 관계 모색을 위한 교육적 실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sup>4)</sup> 윤재홍은 학교 교육의 폐쇄성과 경쟁 지식 교육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긍정의 장소, 즉 관계의 모색이 가능한 한국의 골목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골목은 집과 세계, 외부와 내부의 ‘중간지대’에 있는 위치하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존재 변화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가족에서 동족, 이웃, 마을, 세계로 나아가는 관계의 점진적인 확대, 교육의 순차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골목이라고 밝히고 있다.<sup>5)</sup>

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p.68.

2) 윤재홍, 『골목과 이웃의 교육인간학』, 『교육철학』27, 2002, p.74.

3) 이찬규, 『장소의 경험1 : 한국과 프랑스 골목 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전망』, 『인문과학』 제44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p.59.

4) 심민지,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지역문화교육콘텐츠 개발 사례분석-대구 신택리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12.

5) 윤재홍, 위의 논문, p.84.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의 골목 중에서 대구의 원도심에 남아 있는 골목을 역사적 삶의 공간, 소통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문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그것은 공간 스토리텔링이 공간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골목의 재구성에 활용된 스토리텔링, 즉 지역 역사 공간 스토리텔링의 실재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역사문화자원인 대구 원도심에 있는 골목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할 것이다. 그것은 골목 속에는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 문화 양식, 관계의 구조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골목 스토리텔링이 지역 주민들의 주체가 되는 지역 재구성 과정이라는 점을 호가인할 것이며, 또한 골목에 내재된 개인의 역사와 경험이 스토리의 원소스가 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공간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이야기 꾸미기를 넘어 지역 공간 및 장소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삶의 관계성과 인문적 가치를 복원하는 인문적 글쓰기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골목의 문화적 가치와 스토리텔링

### 1. 골목의 문화적 가치

인간의 가치, 신념, 행위 양식 등 사회 생활양식의 총체를 문화라고 규정한다면,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생활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는 역사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적, 공간적 단위인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 고유의 문화적 유산, 문화산업, 관광 산업 및 이와 관련된 활동과 결과의 총체인 것이다. 즉, 지역문화는 공간과 지리적 환경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인간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언어 관습 및 정서체계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골목은 가장 지역적인 위치에서 지역의 생활 문화와 공간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문화의 응축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특정 장소는 하나의 문화 자산이며 지역문화를 응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장소자산(place asset)이란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긍정적 요소, 즉 장소의 매력으로 기능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성을 재구성할 때 나타나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소자산은 첫째, 비복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간의 역사와 인간의 이해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장소 정체성을 실현하는 곳이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상기할 때, 그 장소는 그 사회와 당대적 정체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셋째, 지역 의존적 자산, 넷째, 장소 배태적 자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구의 근대 골목은 지역 사회의 근대적 산물이자 문화이며 문화재이다.<sup>6)</sup> 그리고 골목은 생활공간으로서 일상을 구성하는 인문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골목에는 역사의 흔적과 이야기가 있으며, 사람과 공간이 직접 접촉하며 만드는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 어떤 개인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이며 이웃과의 소통을 시작한 곳이다. 또는 일상적인 삶에 관계된 문화양식이 남아있는 특수한 장소이다.

최근 대구 근대 골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전통 골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 거리의 대형화, 획일화, 물질화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한 것이며 또한 개인의 추억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골목의 가치에 관심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골목에는 개인과 공간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공간의 역사를 내면화 할 수도 있다. 즉, 골목의 역사는 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가 담고 있다. 또한 골목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각 민족들의 심성과 문화를 내재하고

6) 김기홍·이애란·정혜진, 『골목을 걷다』, 이매진, 2008. p.236.

있으며 그 지역의 생활 방식을 담고 있는 원형문화적 공간이다. 대구의 근대 골목 또한 이러한 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그것은 대구의 원도심과 골목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도심 내 읍성지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261년 나마국종이 성주였던 ‘달벌성(達伐城)’으로 시작한 지역으로, 그 원형이 현재 도심의 서편에 그대로 남아 있다. 도심의 중앙에는 임진왜란 이후 1601년 경상감영이 건축되고 1735년 대구읍성이 건립되면서 선화당, 정청각 등이 자리를 잡게 된다.

대구읍성의 남서쪽에는 부산 동래로부터 한양으로 올라가는 육로였던 영남대로의 간선로가 형성되었으며, 이 길을 중심으로 조선의 3대시장인 서문시장과 1658년 무렵 한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약령시(藥令市)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구한말에 조정의 혼란을 틈타 민간의 자발적인 전통시장이 급성장했으며, 1905년 경부선 대구역이 개설되면서 도심은 일본인들의 식민지 내륙중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더해진다. 식민지 지배의 흔적들은 도심 북동편 지역인 북성로, 태평로, 교동 일대에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의 시간 궤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구사수론’을 펼쳐지면서 한국군, 미군, 연합군 등의 주요 기지가 대구에 주둔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게 된다. 결국 대구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가 되었고 피란민들이 몰려들면서 다국적, 다지역 사투리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으며, 전후 복구기 경제, 문화, 예술이 남달랐던 시간의 궤적들은 대구역 주변의 향촌동, 화전동, 교동 등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근현대기 중구 도심지역은 대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요활동이 중첩되었으므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특별했던 곳이기도 하다. 국채보상운동의 주창자인 서상돈, 민족문인 이상화, 이육사, 현진건, 천재화가 이인성, 이쾌대, 음악가 권태호, 박태원, 김문보, 서예가 서병오, 박기돈 등이 계산

동 주변 근거리에 살면서 교우하였다. 서양종교를 개척한 가톨릭·개신교 선교사들의 흔적도 도심부 남산동, 동산동, 남성로 일대에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현존하고 있다.

한편, 대구 읍성은 지역의 변화와 생활, 사회문화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의 대구시 중구도 이 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고대시대부터 지역 사람들의 생활은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2천여 년 간 이어왔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 읍성 주변과 경상감영, 서문시장, 영남대로 등을 중심으로 정치, 행정, 경제, 생활의 중심지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전통도시가 바로 대구 원도심이다. 이러한 도시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감영 중심, 읍성 중심의 거주 형태를 만들게 되고, 이는 골목을 만드는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골목의 크기와 구조, 흐름의 방식은 곧 당대의 거주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 것이다. 그리고 대구의 골목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당대의 또 다른 주거 형태를 반영하고 근대의 다양한 건축 미학과 방식들을 담게 된다.

현재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편 종로, 진골목, 장관동, 약령시, 향촌동 일대는 장·노년층의 생활, 문화, 여가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이와 상반되게 젊은 층의 활동은 동편 동성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성내지역은 행정동 1, 2, 3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법정동으로 나뉜 동의 면적과 경계는 읍성시대 이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행정동을 중심으로 통반, 주민자치위원, 통우회 등 주민 간 커뮤니티도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상인조직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서문시장, 약령시를 중심으로 구한말 개신교 및 가톨릭, 해방이후 북성로, 교동, 동성로 상권 등의 커뮤니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성내·외 지역을 이끌어가는 주요 경제적 커뮤니티는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매상인 및 상가연합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대구읍성지역을 개척한 주요 세대들과 그 후손들은 서문시장 상인들, 약령시 약종상들, 시장북로 섬유인들과 오토바이상, 북·서성로의 공구기업인 및 교동시장 도매상인들이다. 이들 중 연로한 1세대 개척인들은 자녀세대들과 함께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읍성 골목의 주요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 골목은 읍성의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도시조직, 근현대 경제활동, 개척세대의 삶, 이 삼박자가 완벽히 살아있는 곳이며 장기간의 도심 쇠퇴현상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도심 문화, 생활 문화를 간직한 주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구성할 때, 골목은 현재의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문화 공간, 장소자산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 2. 장소성과 스토리텔링

주지하다시피 도시 공간은 물질적 집적 그 이상의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의미의 생산물이다. 실제로 도시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고 삶의 총체성이 녹아 든 문화적 양식의 덩어리이며 사람에게 유의미한 수많은 표현체 즉,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그러므로 도시는 수신자 혹은 독자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담화이며 발신자나 도시의 시민들에 의해 발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들의 집합인 텍스트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 이 다양한 의미 구조의 복합체로서 도시 경관은 읽혀질 수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그러나 도시 공간의 텍스트적 의미는 다른 텍스트가 주는 의미작용과 다르다. 광고, 영화, 문학과 같은 텍스트는 그것

7) 김영순·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24집, 텍스트언어학회, 2008, p.168.



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서사장치가 존재하고 독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도시가 주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풀어 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도시 공간의 본질적인 느낌이나 분위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도시라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업과 공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감성을 길러내는 작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공간의 소통 방식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그 공간에 의미를 생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공간이 골목처럼 오랜 역사를 내재하고 있을 경우, 그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공간과의 소통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골목과 같은 공간은 사람들이 직접 육체적으로 체득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의미체로 구성된다. 그것은 공간이 사고를 통해 인지하고 관념을 통해 읽어내는 텍스트라기보다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 읽어내는 텍스트에 가깝다. 그러므로 도시의 골목은 직접적 경험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기억 등에 의해 의미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골목은 좀 더 원초적인 체험적 소통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러한 체험적 소통을 위한 장치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sup>8)</sup>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이야기와 작가의 말하기가 합쳐진 말이다. 이인화는 “스토리란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걸러진 지식, 알기 쉽고 느끼기 쉬운 지식이다”<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간에 대한 경험 혹은 사연 등이 대중의 감각과 새롭게 만날 때, 스토리텔링은 실현된다는 말이다. 즉, 이야기란 전달하고자 하는 가공된 정보로서 사건과 사물, 사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여기에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등이 뒤

8) 김영순·정미강, 위의 논문, p.171.

9)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 2005.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텔링’, 즉 ‘말하기’는 작가 혹은 말하는 주체의 체험과 이해, 욕망 등을 새롭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적 체험이던 시민적 체험이던 체험을 통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성취하는 과정이 곧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은 가공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체험의 새로운 전달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도시들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본래의 자연경관을 깎아내고 비슷한 외형의 건축물을 지어 올린 탓에 특징 없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관이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하며 효율성이나 기능성 경제성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한데서 비롯된 것임도 분명하다. 인간은 타인이 만든 인공물 속에서 단지 그 기능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간을 메운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장소에 대한 애착은 점점 사라지고 건조한 구조물만 남아 본래의 장소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나 특수성을 가진 몇몇 건축물을 그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미묘한 경관은 현대 도시의 정체성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체험으로서 장소 혹은 공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첫째, 공간 읽기를 유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이야기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 및 특징을 쉽게 이해시키며 셋째, 이야기를 통한 각인의 효과로 공간의 이미지 형성이 쉽고 지속적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간 기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공간의 소통을 열어주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저 단순히 이야기를 공간에 대입하는 것이 일시적인 흥밋거리 이상의 생명력을 가진 의미 있는 장소로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공간의 맥락이다. 골목 스토리텔링의 경우, 골목의 맥락, 즉 골목의 종합적 의미와 특징, 전체성과 이를 구성하는 관계나 세부

적인 활동 등을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간의 맥락은 공간의 역사적, 지형적 인간의 행위적인 특성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지형의 관찰, 현상학적 관찰,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한 조형적, 현상학적, 기호학적 읽기의 통합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 역사적 특성은 문헌적 고찰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지형적 특성은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의 전체적인 시공간적 이미지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형적 분석이 원래 경관의 모습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 및 행동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 맥락 분석 후에는 이를 통해 공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장소성을 파악해야 한다. 장소성 파악을 통해 흩어져 있는 현상들이 특정한 이미지로 모이게 되면 공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프라하에 대한 카프카의 묘사, “어두운 모퉁이, 신비스러운 샛길, 감춰진 창문, 지저분한 뜰, 시끄러운 선물집, 비밀스러운 여관들”이란 표현은 프라하의 장소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장소성의 개념은 현대의 도시 공간에 와서는 그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야 한다. 도시공간들에 대한 경험이 대부분 스쳐가는 방문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장소성은 인간이 꾸준히 그 장소를 다시 찾아옴으로써 형성되고 경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간이 그 만의 본질적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공간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로써 공간 스토리텔링의 목표를 뚜렷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 정체성 있는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다음으로 테마와 이야기는 공간의 정주자 및 방문자가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공간의 맥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장소성을 특정한 테마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알맞은 이야기를 발굴하거나 구성하는 것은 공간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공간의 스토리텔링은 어떤 관념이나 개념적인 정보 보다는 공간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에 있어 이야기의 사실 여부, 플롯의 완벽성이나 분량의 많고 적음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공간의 맥락 및 장소성과 닿아 있어서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며 공간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Ⅲ. 대구 골목 스토리텔링의 실제와 의미

#### 1. 『마당 깊은 집』과 공간 스토리텔링

소설 『마당 깊은 집』<sup>10)</sup>은 대구의 원도심인 ‘장관동’을 배경으로 1954년 전후의 생활과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설은 당시의 생활과 풍속, 일상 속의 이야기나 사연, 인물 개인들의 개인적인 욕망 까지도 시대적 포즈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소설은 주인공 ‘길남’이를 통해 당시 대구의 원도심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문사나 극장, 시장, 골목 등 일상 생활 공간이 소설의 주무대이자 시대적 공간으로 전면화 되고 그 속에서 개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당 깊은 집』은 대구 원도심 골목을 새로운 삶의 장소로 전환시키는 대표적인 공간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일상 공간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후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개인들의 고난한 삶이 마당 깊은 집과 골목 공간 속에 재현되고 있다.

10) 김원일, 『마당 깊은 집』, 1988, 문학과지성사.

이러한 『마당 깊은 집』은 도시 공간의 역사성과 사람들의 일상적 기억들이 공간 재구성에 주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준다. 그것은 소설 『마당 깊은 집』이 ‘마당 깊은 집’과 그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점과 그들의 생활을 소설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간 스토리텔링이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생활사를 핵심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최근 대구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목의 재발견 또한 『마당 깊은 집』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기본적인 방법적 틀로 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서 그들의 기억과 생활사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시민(주민)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을 『대구新택리지 프로젝트』을 통해 확인하고 그 의미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도심은 살아 있다』란 스토리텔링을 통해 체험과 생활의 실체로서 골목의 존재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해 볼 것이다. 셋째, 공간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의 생애와 기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간의 포켓북』이란 스토리북을 통해 살필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공간 스토리텔링이 지극적 인문학적인 글쓰기이며 공간의 재구성 과정임을 밝힐 것이다.

## 2. 시민 중심 스토리텔링-『대구新택리지 프로젝트』

오래된 도시는 무수한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그 흔적들은 때로 문학적 레파토리나 예술적 영감으로 이어진다. 대구의 도심을 거닐다 문득 만나는 건물 하나, 골목길 한 구석에는 우리는 도시의 레파토리와 시간의 흔적 같은 것을 보게 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겹의 이야기와 그 속애 스며든 삶의 켜들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고 흔적이 되며 무늬로 나타난다.

대구의 도심은 당연하면서도 놀랍게도 도시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다. 대구의 내부를 깊이 천착한 건축학자나 문화사학자들의 즐거운 비명은 이를 증언한다. 한국의 근대를 생각해 보면, 도시의 흔적과 생활사의 변화를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자 행운이다. 그리고 그 생활의 흔적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은 대구 도심을 역사문화와 사람들의 기억들로 재생하기 위해 도시의 낱알을 찾아 나섰다. 바야흐로 도시의 영혼을 찾아 나선 특별한 프로젝트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대구문화지도』 만들기로 촉발된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이다. 2001년, 대학 YMCA 대구시연맹 소속 대학생들이 만든 『대구문화지도』는 공간을 평면적인 시선에서 기술하는 교과서 지도가 아닌 사람의 기억과 흔적, 역사와 문화를 도시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의미의 지도’였다. 도시를 바라보는 이 새로운 시선과 정신은 결국 지역 시민들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면서 주요한 도시 프로젝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구문화지도』(2001), 『골목은 살아있다』(2002), 『대구 新택리지』(2007)<sup>11)</sup>와 같은 결과들은 도시 재생의 주요한 콘텐츠이자 하나의 정신 모델로 주목받게 된다.

이러한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가 보여준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공간 스토리텔링 기반을 전제함으로써 시민의 증언과 이야기 중심의 인문지리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를 공간과 사람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종의 생활사를 바탕으로 대구의 내부를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도시스토리를 지역 시민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도시 이야기 역사(Story-History)를 구성한

11)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 新택리지』, 북랜드, 2007.

순환적 스토리텔링 방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특히 수집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답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도시 이야기가 확대·재생산 되는 스토리텔링의 선순환적인 생산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다.

둘째는 일상적 삶이 역사를 구성한다는 생활사적 관점이 전면화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인의 일상이 곧 역사라는 프로젝트의 정신이 내재되었 있기 때문이다. 약전골목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대구의 근대적 공간 경험을 설명하고, 전후 대구의 골목 풍경이 개인의 향수를 넘어 기록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대구의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셋째, 시민 주도의 장기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도시 공간 스토리텔링의 주요한 콘텐츠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기관 중심의 도시 계획과 건축업자들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도시 개발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욕구에 기반하고 역사와 문화를 내재화 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시민들 스스로가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와 생활 이야기를 콘텐츠로 하는 다른 도시 기획과는 밀도가 다른 시민들의 스토리텔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의 경과는 시민 중심의 도시 공간 스토리텔링의 가치와 브랜드 창출의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특히, 2002년 4월 이후 대구광역시 종합지원봉사센터와 함께 골목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시작하면서 골목문화답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이나 기존 대학 YMCA 대구시연맹 ‘新택리지 프로젝트’ 팀이 2002년 12월 ‘(사)거리문화시민연대’를 조직한 것은 시민과 행정 조직이 연대하는 도시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다. 도시 공간의 장소성을 발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기획 하는 과정은 폐쇄적이고 인위

적인 도시 공간을 사람들의 감성과 상상력이 펼쳐지는 텍스트 공간, 그리고 문화적 기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의 원적지이자 생활사의 원천이 되는 도시 공간의 장소성을 이야기 체계(서술 체계)를 통해 기억과 향유의 적극적인 의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제시한 것은 도시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성,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sup>12)</sup>에서는 그 과정을 장소성의 발견과 스토리텔링 기획 및 문화적 기억 탐색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장소성의 발견이란 도시 공간의 물리적 토대에 내재한 인간 체험의 다양성을 의미화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도심 골목길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기에 기억과 역사의 장소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골목길은 버려지거나 잊혀진 공간이었다.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의 골목길을 역사적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 시간이 세월이 되고 생활이 역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 골목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는 일. 나아가 골목길을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근대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로 발견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도시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배제나 소외의 공간에서 역사와 교육의 현장으로 골목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리고 新택리지 프로젝트에서 장소성이 시민에 의해 발견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는 생활 공간이 역사의 주요한 영역으로 등장하는 과정이며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생활의 방식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기획 과정은 발견한 장소성을 구체화·현실화 하는 과정이다. 특히 장소성을 잘 나타내는 스토리의 형식과 내용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스토리란 단순 이야기 자체라기보다 특정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

---

12) 심민지, 위의 논문.



의 파편들을 새로운 인식 단위로 탐색하고 이를 문화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서술 체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단순 기억을 문화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을 테마화하거나 장소성을 고려한 공간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이다.

‘新택리지 프로젝트’는 이 골목이라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생활동선을 지도 구성의 틀로 삼았다. 공간에 대한 기억의 원재료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지도에 담았다. 이는 다시 문화적 기억의 탐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장소성에 따라 새로운 문화지형으로 재구성되고, 개별적인 장소성을 하나로 잇는 코스로 기획되었다. ‘청소년문화 공간’과 ‘역사문화공간’ ‘마을과 거리’ 등으로 기존의 도심 공간을 새롭게 범주화 하고 이를 ‘청소년문화 인큐베이터’, ‘대구 100년사 골목’, ‘인간과 마을 네트워크’ 등 새로운 문화지형으로 테마화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장소성을 만나거나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간 인지가 주로 주요 건물 혹은 공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문화적 기억으로부터 발견하는 장소성은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생활의 동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주요 공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기억 탐색 과정은 스토리텔링 기획 단계에서 수립된 주요 생활 및 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답사와 인터뷰, 촬영과 문헌조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다. 인터뷰에 담긴 현실 상황과 이해들, 수집된 다수의 문화적 기억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새로운 자료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걸어서만 만날 수 있는 역사이며 생활 동선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야기란 점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와 밀도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정체감과 공감의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골목문화해설이나 문화지도 제작은 이러한 공감과 정체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의 역량은 『대구 新택리지』로 모아진다. 생활사와 지역 시민들의 공간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구 도시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도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담고 있다. 일상에 대한 미시적 증언들이 일상 공간을 역사적 장소로 전환시키는 것은 일상사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다. 일상사의 관점이 『대구 新택리지』의 조사 관점이 된 것은 도시 공간의 역사성과 문화,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증언은 근대 공간으로서 대구를 발견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준다.

수집된 기억의 재구성은 다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위한 원 소스(one source)가 된다. 『대구문화지도』가 도심의 투어 가이드 북 역할을 한 것이라면, 『대구 新택리지』는 도시에 대한 인문적 기획과 함께 건축, 조경, 축제로 이어지는 원천 정보를 담고 있는 도심지(city ethnography)로서 기능한다. 2004년 1월, (사)거리문화시민연대는 대구 新택리지 실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면서 시민 증언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성된 도심 이야기를 토대로 ‘지역문화모니터’, ‘가이드북 발간’, ‘워킹투어’ 등 통합적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동시에 대구 문화자원 클러스터 구축, 도심의 동선과 컨셉, 이미지를 재배치함으로써 대구의 재발견을 시도한다. 그 결과로 『대구 新택리지』를 기획한다.

『대구 新택리지』에 등장하는 도심 공간들은 대부분 기존의 주요 도심 공간에서 배제된 곳이다. 종로와 동산, 동산, 달성, 진골목, 양말골목, 미싱골목, 향촌동, 대안동 수제화 골목, 염매시장, 삼덕동 3가 등이 그곳이다. 이곳은 대부분 시민들의 증언을 통해 등장한 공간들이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대구읍성골목’이라는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 내면서 대구 도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수렴된다. 그 문화적 기억에 대한 탐색은 주로 골목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생활사와 문화원형에 대한 조사, 시민 증언, 문헌과 사료의 재확인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2007년 3월 27일 발간된 『대구 新택리지』에는 ‘걷는 즐거움, 대구 생활

사가이드 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부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걷는 관광을 전제로 도심의 근대적 일상을 문화, 예술, 역사를 축으로 생활사 인문지리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구의 도심 재생이 『대구 新택리지』의 시민적 관점과 생활사의 방향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답사와 '마당깊은 집' 축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것이다.

### 3. 체험과 실체로서의 골목 스토리텔링-『도심은 살아있다』<sup>13)</sup>

도심 재개발이 도심 재생이나 도시 창조로 전환되면서, 도심의 역사 문화가 도시의 정체성으로 표현되거나 창조 도시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구의 골목은 100년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대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이다. 골목은 지난 100년의 이야기, 사람들의 욕망과 사연, 다양한 생활방식과 건축 등으로 중층 되어 있다. 골목은 식민지와 근대화, 산업화 시대의 복잡과 민주화의 열정 등을 고농축 하고 있다. 골목이 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골목은 그 깊이 만큼 무수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2011년. 대구 매일신문사의 김재경 기사는 지역 재발견의 관점에서 골목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물론 이전의 '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와 같은 기획과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 기사는 골목에서 대구의 브랜드를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사의 시선으로 정책 입안자(공무원)들의 평면적인 이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불편함을 제고하는 도심 재생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을 시도하기도 한다.

13) 김재경·서상현·이채근, 『도심은 살아 있다』, 리즈엔북, 2010.

또한 도시 재개발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권역별 주민 좌담회를 전문가와 함께 주최하고 골목 등 도심의 숨은 가치를 알렸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심층 인터뷰와 생애 구술을 통해 도심의 역사 문화적 요소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과 도심 생애를 정리하고 재발견한 도심의 이야기를 신문 지면에 실으면서 시민들 반응과 지자체의 정책적 이해를 기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골목을 강조했다. 골목은 걷는 길이다. 김 기자는 걸으면서 취재를 하고 다시 취재의 결과를 골목 걷기 콘텐츠로 수렴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해서 『도심은 살아 있다-도심 재창조를 위한 1년간의 현장 기록』이라는 도심 재생 이야기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한다. 책에서 보다 집중한 부분은 도심의 생태와 역사문화적 관점과 인문학적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기획안 제안이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걷기를 위한 도시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도심의 교통 정책은 차 중심이다. 도심의 일상이 구축한 역사에 가까이 접근하고 그 스토리를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걷기를 통해 실현된다. 이를 위해 김 기자는 ‘도로 다이어트’를 제안하고 도심을 걸어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도심 재창조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도심은 살아 있다』는 바로 이러한 체험과 실감을 중심에 둔 스토리텔링이었다. 시민들이 골목을 직접 걷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이해, 관심의 밀도를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소로 한 것이다.

한편, 골목이 대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심 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만의 색깔과 디자인으로 도시를 창조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스토리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디자인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재생을 제안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스토리나 루마니아 중부도시 브라쇼브의 드라쿨라 백작 이야기, 바르셀로나 광장의 오줌 누는 소년상에 얽힌 히스토리 등 도시 스토리에서 이야기 기반 도시 브랜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 도심 골목의 이야기가 대구 브랜드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책에서는 도심 이야기가 시 교육청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책에서 김 기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도심 공간을 재창조 하자는 제안도 한다. 대구 도심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정주 기능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과거 대구 읍성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곳이지만 도시의 확대는 도심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도심을 다시 정주와 생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실제 생활 공간으로서의 도심, 골목을 제안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골목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도심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만들고 거리와 생활 공간을 전시와 공연 장소로 전환시킴으로써 도시 슬럼 지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정주와 생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브랜드로 성장시키자고 말한다. 특히, 대표적인 도심의 슬럼지역인 KT&G 부지(전 연초창고)를 문화예술 플랫폼(대구문화창조발전소)으로 전환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과 실행의 의미를 재확인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생기를 북돋우기 위해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거리와 골목, 신천 주변에서 놀게 하자고 말한다. 도심의 거리를 아이팟과 MP3가 필요 없는 예술적 재미로 채우자고 강변한다. 도심의 예술적 에너지를 축제로 수렴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도심거리 축제를 구상하자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 기자는 책에서 발로 만난 지역 시민들의 생각과 현실, 상

상력과 이야기를 강조한다. 도시 스토리텔링의 방법과 방향도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도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도시의 생태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현실적 실감이 스토리텔링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4. 사람과 생애 중심 스토리텔링-『시간의 포켓북』

공간 스토리텔링의 핵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어느 시민의 ‘신세타령’이 스토리텔링의 원료가 된다. 근대의 일상을 살아 온 사람들의 생애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구를 재발견하는 일은 일상의 평범한 거리 위에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상적 삶을 역사와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개인사는 역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대구의 도시 공간 스토리텔링은 기록되지 않은 도심의 생애에 주목했다.

어느 할아버지의 40년 반 평생 이야기는 근대 박물관의 주요 목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생애들이 인멸하고 있다는 상황과 기억의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당면과제였다. 기억과 증언의 상한(上限)은 고작 70년이다. 사라지기 전, 기록되지 않은 도심의 근대를 개인의 구술로 채우는 일이 도시 공간 스토리텔링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구와 종로와 약전골목, 진골목 일대에서 지난 세월을 보낸 7분의 생애 구술 책 발간은 그런 의미에서 뜻 깊은 일이었다. 『종로·진골목·약전골목, 그 시간의 포켓북』<sup>14)</sup>에는 도심의 다양한 삶의 궤적과 흔적이 담겨 있다. 책은 1.85평 구멍가게에서 40년 동안 약전골목의 일상을 바라본 김우집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종로와 염매시장에서 장사로 반평생을 사신 이화숙 할머니, 100년의 한약 가업을 물려받은 숙명적 삶의 이용식 어른, 104년의 지물포의 역사를 증언한 김종대 씨의 생애 등 7분의 기억을 담았다. 그

14) 대구시 중구, 『종로, 진골목, 약전골목, 그 시간의 포켓북』, 디자인플랜, 2011.

생애는 곧 종로와 약절골목, 진골목의 일상이자 근대의 풍경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한 사람의 생애는 공간에 대한 경험의 역사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생애 열전 100인 사업’은 지역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 도심 재생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생각의 하나다. 생애 구술 및 자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만큼 다양한 세월을 살아왔으며 도심과 골목에 대한 기억 또한 다양한 분들이다. 이상화 고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술하는 최찬식 어르신, 염매시장의 산 증인이신 정옥순 할머니의 구술은 도심 공간의 실체를 재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70년대 대구 도심의 풍경 중 하나인 양복점의 일상도 구술 생애를 통해 담겼다. 가족사가 대구의 근대사이기도 한 허귀진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생애도 소중한 대구 이야기로 모아졌다. 이는 곧 개인의 생애이자 대구의 생애이기도 하다.

도심의 건물 하나, 공간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시대 우리들의 생애가 함께 겹쳐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역사이다. 우리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 그 지역의 공간과 역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 이야기와 어머니의 일상으로 새로운 역사와 공간을 기록할 수 있다. 그것은 진짜 우리들의 역사이며 삶일지 모른다. 그래서 생애열전 사업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애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특별한 기획이 된다.

시간이 공간을 만나 한 사람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 속 깊은 역사가 된다. 도시의 어느 한 순간은 특별한 역사의 현장이며 한 인생의 중요한 기억이 된다. 그러므로 도시 공간 스토리텔링은 결국 지난 시간과 공간이 사람들을 기억을 통해 다시 재생되는 일이다.

도시의 영혼을 깨는 일, 다시 도시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일은 도시 속에 사람들의 숨결과 이야기와 감정을 불러 넣는 것이다. 지난 도시의 역사는 범박하게 말해 인간을 분리되고 배제하는 결핍의 시대였다.

지금, 도시를 새롭게 기획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 속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대구 원도심 및 골목 스토리텔링은 바로 이러한 관점과 이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대구의 원도심에 형성된 골목은 자연과 역사, 사람과 도시가 만든 문화적 산물이다. 이 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대중화 혹은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 주요한 방법론이자 방향이 된다. 대구 원도심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장소성을 중심으로 골목에 내재한 시민들의 생활과 체험, 사람의 생애와 기억을 스토리텔링의 핵심 기제로 활용하였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간 소외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각을 재생하고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 체계를 통해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구의 골목 스토리텔링은 시민들의 공간에 대한 재해석 과정이 도시 재생의 주요한 과정으로 이해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의 과정을 수렴하는 매우 독창적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공간에 대한 기억을 생애사(生涯史)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사람의 생애 속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공간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게도 하였다. 장소성을 토대로 한 골목 스토리텔링의 방향과 그 실체가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 나아가 지역 자원 관광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곧 도시의 새로운 구성과도 깊이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은 결국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 및 글쓰기가 대중들과 현실 속에서 과정이며 그것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 新택리지』, 북랜드, 2007.

김재경·서상현·이채근, 『도심은 살아 있다』, 리즈앤북, 2010.

대구시 중구, 『종로, 진골목, 약전골목 그 시간의 포켓북』, 디자인플랜, 2011.

### 2. 단행본 및 논문

김기홍·이애란·정혜진, 『골목을 걷다』, 이매진, 2008. p.236.

김영순·정미강, 『공간 텍스트로서 ‘도시’의 스토리텔링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24집, 텍스트언어학회, 2008, p.168.

심민지,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지역문화교육콘텐츠 개발 사례분석-대구 新택리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12.

윤재홍, 『골목과 이웃의 교육인간학』, 『교육철학』, 2002, Vol.27. p.74.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 2005.

이중환, 이민수 옮김, 『택리지』, 평화출판사, 2005, p.41.

이찬규, 『장소의 경험1 : 한국과 프랑스 골목 문화의 새로운 가치와 전망』, 『인문과학』 제44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p.5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p.68.

**Abstract**

The study of storytelling an alley i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Daegu

Park, Seung-hee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historical value of an alley created i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Daegu, and it looked into the process of the reproduction of a restructured city through based on a sense of place. A place is where the order of humans and the order of nature are combined, and it is a very meaningful center where we experience the world directly. A place is a phenomenon that is not an abstraction or a notion, but it is where a world of living is experienced directly ; therefore, a place is filled with meanings, existing objects, and continuous activities.

This study took a look into several cases of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an alley remaining i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Daegu, as an example of an urban alley, into a space of living and a place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from a physical space, and it analyzed its meaning. In particular, storytelling utilized in the restructuring of an alley, and the real existence and direction of the storytelling of local cultural assets may be the main focu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local historical cultural resources and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resources and storytelling.

Key words : an alley, storytelling, a sense of place, place text

박승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옥수동 태왕월드하이츠 103동 807호

전화번호 : 010-3815-8749

전자우편 : bround33@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23일 게재 확정됨.